

“행복나눔 정신 다시 한번 가슴 깊게”

적성면 어르신 행복나눔 한마당 큰잔치

순창군 적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영욱·진영무, 이하 지사협)는 15일 적성 실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회 적성면 어르신 행복나눔 한마당 큰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23개 마을 70세 이상 남·녀 어르신 300명을 모시고 기념식 및 색소폰 공연, 민요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정성균 군의회 의장, 최영일 도의원, 순창군 의원과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기쁨을 함께 했다.

적성면 지사협 지정가족들과 각 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후원 외 지사협 및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원활히 진행됐다.

여기에 이장군 지사협 총무(52)가 재능기부로 색소폰 공연을 선보이며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달아올랐다.

행사를 주관한 윤영욱 위원장은 “적성면에서 처음으로 열린 행사라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관·사회단체 등 면민 여러분들이 내 일처럼 협조와 성원이 있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영무 적성면장(공동위원장)은 “어버이를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어르신들의 가르



순창군 적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일 적성 실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회 적성면 어르신 행복나눔 한마당 큰잔치를 열었다.

침을 실천한 것 같아 기쁘다”면서 “지역사회 봉사와 행복나눔 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 깊게 새기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성면 지사협은 올해 1회를 시작으로 면민의 날이 개최되지 않는 해에 격년제로 어르신 행복나눔 한마당 큰잔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익산소방서, 전국장애학생체전 ‘의용소방대’ 활약상 눈길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맞아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의용소방대’의 활약상이 눈길을 끈다.

90명으로 구성된 이번 안전요원 의용소방대는 익산종합경기장 등 2개소 곳곳에 배치되어 안전요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순찰, 응급구급세트를 소지하여 부상자 발생시 현장 구급대원 및 의료진과 함께 응급처치 역할에도 특화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더불어 소방안전체험교실 부스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방화복 체험, 소화기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등 교육·홍보 활동에도 솔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익산 남녀의용소방대장(황인주, 남궁영례)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소방안전체험교실 도우미 역할을 통해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전국민이 찾아오는 이번 행사에서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의 활약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하림,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들에 현장체험 학습비용 지원

(주)하림(대표이사 박길연)이 올해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5일 정읍여자중학교(교장 임덕만) 2학년 희망학생 전원은 서울 경기 일원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실시되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이하 수학여행)을 떠났다. 이는 지난 14일 (주)하림정읍공장 이재신 공장장이 학교를 방문해 가정형편으로 섣불리 수학여행 참여를 망설이던 13명의 학생들에게 195만원을 전달했기에 가능했다.

한편 (주)하림은 지난 2017년부터 기초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가정의 자녀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총 13명에게 장학금 10만원과 용돈 5만원 등 총 15만원을 지원했다.

정읍여중 임덕만 교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학여행에 부담을 갖는 학생들을 위해 하림이 3년째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해 감사하다”며,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꾸준한 사랑의 전달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성기자



임실교육지원청, 제37회 임실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개최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장나영)은 지난 14일 임실초등학교 미래관과 임실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생 34팀 68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7회 임실청소년 과학탐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도전하는 체험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과 탐구력을 향상시키고 팀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장으로 융합과학, 항공우주, 과학토론 3개 종목에서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진행됐다.

한편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은 학교별 예선대회를 거쳐 학교 대표로 선발된 학생들로 각 종목별 1위 팀은 임실군 대표로 오는 6월 전라북도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무진장 119안전센터와 소방 합동훈련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필환) 직원 100여명은 15일 무진장소방서 진안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에서 공공기관 소방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청사 화재 시 신속한 초기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효율적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목표로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이번 소방훈련은 청사 3층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상황전파훈련, 직원 및 민원인 대피훈련, 소화기·유내 소화전을 사용한 화재진압 훈련, 건물 내 중요문서 반출, 환자 처치 및 이송 순으로 이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원광대·군산대·전북은행 배드민턴팀, 종별선수권 성적 ‘우수’

전북의 ‘서늘록 전사’들이 전국 무대에서 맹위를 떨쳤다.

15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전남 강진에서 열린 제62회 전국 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원광대와 군산대, 전북은행 배드민턴팀이 각각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원광대는 남자 대학부 단체전 결승전에서 백색대를 3대2로 누르고 정상에 차지했다.

이로써 원광대는 불철종별대회에서의 패배를 설욕함과 동시에 2017년과 2018년 여름철종별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3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또한 개인복식에 출전한 원광대 서승재·임수민도 1위에 올랐다.

군산대는 여자 대학부 단체전 3위, 개인단식 3위(배경은)를 기록했고, 전북은행도 여자 일반부 개인단식 3위(이경미)와 개인복식 3위(공희용·윤민아)에 올랐다.

이처럼 전북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선전을 거두면서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의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

한편 여름철종별선수권대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배드민턴 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가진 최대 규모 대회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산행인구 증가 따른 안전 등산로 시설물 정비 유지

진안군은 최근 산행인구 증가에 따라 산행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등산로 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인 구봉산과 운장산 등의 목재시설물인 정자나 데크계단 등이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 노후화와 탈락 현상이 나타나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정비에 나서게 됐다.

총 사업비 5000여만원을 들여 구봉산 및 운장산 등산로 난간과 전망대 도색, 편백숲 산림욕장 데크 도색작업을 마쳤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의시설 구비 및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산행 이용객이 안전하게 등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을 대비,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대응을 위해 ‘산사태대책상황실’을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

또한 상황 발생 시 긴급복구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산사태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울해 시공하고 있는 사방벽 2개소, 계류보전 0.32km 사업을 우선에 완료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소방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간담회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5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심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와 직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문기인 대자병원 이병관 원장을 초청해, 직원 정신건강 실태를 공유하고,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관심도 제고 방안 논의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향상하고자 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박덕규 서장을 비롯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각 119안전센터?구조대장이 참석했다.

또한 직장훈련은 ▲소방공무원의 자살·외상 후 스트레스 발생을 분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우울증과 참혹한 현장 목격 후 스트레스 관리법 등으로 교육했다.

박덕규 서장은 “간담회와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통해 현장 활동 대원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됐으며,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극복을 위한 심신건강을 위해 편안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직장훈련과 병행해, 무진장소방서에서 매월 추진하는 소방 활동에 공이 많은 자, 일명 ‘SUPER STAR’에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화재에 지원된 소속 직원 5명에게 뜻깊은 서장 표창식을 실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창소방서, 주택화재 초기진화 주택용소방시설 포창장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최근 고창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주택화재에 소화기 초기진화로 큰 불을 막은 마을 주민에 대해 주택용소방시설

더불어보상 및 소방서장 표창장 수여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21일 오후 8시 37분경 고창군 신림면 한 주택 화목보일러 연통과 인접한 지붕 부근에 연기와 불꽃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한 뒤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진화하여 불이 주택까지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에 고창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지역 주민에게 서장 표창 수여와 함께 진화에 사용한 소화기의 2배인 소화기 4대를 지급하는 ‘더불어보상제’를 운영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경찰,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회의

남원경찰서는 15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는 부서별 단편적 판단에 의해 경찰 조치 및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다 보면 현장조치 미흡사례나 정책 사각지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각 기능간 연결·조정·협업(3C) 활성화로 종합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기능별 역할을 고민하고 협의체를 통해 조치 내부 공유·협업·분석뿐만 아니라 기관·단체 등 공동체와의 범사회적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진행했다.

한편 진태규 생활안전과장은 “주민들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기능이 협업을 통해 맡은바 치안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